

##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권태연

선문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과

### A Study on the Life Satisfact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 focusing on ecosystem perspectives

Taeyeon Kwon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and Social Welfare, Sun Mo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인구사회학적 요인(연령, 교육수준, 월소득, 수입여부, 동거기간), 개인체계 요인(한국어 능력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감, 다문화지향성), 가족체계 요인(배우자관계만족도, 자녀관계만족도, 부부대화시간, 의사결정 수준), 사회체계 요인(사회적지지, 모임참여, 차별경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용 경험)으로 구분하여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결혼이주여성 14,464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태체계 요인 즉, 개인체계, 가족체계, 사회체계 요인들 모두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개인체계 요인과 가족체계 요인이 생활만족도의 설명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러 요인들 중 배우자만족도가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요인중에서는 소득수준이, 개인체계 요인중에서는 우울감이, 가족체계 요인에서는 배우자 관계만족도가, 사회체계 요인중에서는 사회적 차별경험이 가장 큰 예측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개입이나 증진을 위해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포괄적인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classified the predictors affecting the life satisfaction level of married immigrant women into socio-demographic factors (age, education, personal system factors (Korean proficiency, self-rated health, depressed mood, multicultural attitude), family system factors (spouse relationship satisfaction, child relationship satisfaction, couple conversation time, decision-making status), and social system factors (social support, social capital, experience of social discrimination,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use) based on ecosystem perspectives and comprehensively examined their effects. The data for 14,464 married immigrant women from the National Survey on Multicultural Families 2015 were analyzed through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the results indicated that all ecosystem factors- that is personal, family, and social system factors- significantly affected life satisfaction level of married immigrant women and especially personal and family system factors increased the predictability on their life satisfaction. Second, among all predictors, spouse relationship satisfaction was the factor most strongly associated with life satisfaction. Finally, the income variable among socio-demographic factors, depression among personal system factors, spouse relationship satisfaction among family system factors, and experience of social discrimination among social system factors all showed the strongest significant effects on the life satisfaction level of married immigrant women. These results suggest that comprehensive factors based on the ecosystem perspectives to intervene and promote the life satisfact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should be considered.

**Keywords** : Ecosystem perspectives,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Life satisfaction, Married immigrant women, the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Corresponding Author : Taeyeon Kwon(SunMoon Univ.)

Tel: +82-41-530-2586 email: tykwon@sunmoon.ac.kr

Received September 28, 2017

Revised (1st November 10, 2017, 2nd November 21, 2017)

Accepted January 5, 2018

Published January 31, 2018

## 1. 서론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한국 경제의 성장과 저출산, 노동력 부족 등으로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한국사회는 급속하게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8년부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역량 향상에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2015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결혼이민자의 수는 약 304,516명에 이르고 있으며 2012년에 비해 그 수가 7.52% 증가하였다. 결혼이주여성 수의 증가와 함께 출신 국적도 베트남, 중국,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타이, 몽골, 우즈베키스탄 순으로 다양화되고 있다[1].

한편 국제결혼으로 인한 결혼이주여성 수의 증가와 동시에 다문화가정 이혼률도 증가하여 전체 이혼인구의 10.3%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정의 이혼 비율은 2013년 23.1%에서 2015년 29.5%로 증가하였다[2]. 결혼이주 여성들은 새로운 가족에 대한 적응과 동시에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통합되어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일상생활에서의 갈등이나 문제요소들이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좌절과 불안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차별감, 문화충격 및 생활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을 동반하여 결혼생활의 만족도나 생활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3]. 특히 한국사회의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어 및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입국하여 가족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가부장적 가치관, 부부위계에 대한 생각, 의사소통의 어려움, 심리적·언어적 폭력, 한국 식 생활방식 강요 등으로 인해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4, 5]. 이러한 갈등이나 문제들은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 및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생활 만족도는 개인의 안녕과 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음주와 같은 건강행동[6], 개인의 건강과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7], 자살의도 및 자살행위[8]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의 생활만족도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가족구성원, 특히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친다[9,10]. 이들의 낮은 생활만족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이거나 후후 개인의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 및 자녀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쳐 가족체제와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주여성들의 생활만족도는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서 설명되는가?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다양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출신국가, 연령, 학력, 소득수준, 결혼기간, 거주지역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1-14]. 연령이 낮을수록, 월소득이 높을수록,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요인으로는 문화정체성 유형, 문화적응 스트레스, 다문화 수용태도 등이 보고되고 있다[15,16]. 자아존중감과 우울 등의 심리적 요인 역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낮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6,17].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지, 사회자본, 사회적 연결망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18-21]. 가족 및 친구들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본국 가족과 접촉하는 빈도가 많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살펴보았을 때,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를 개인 체계 뿐 아니라 그러한 요인이 발생하는 사회환경적 맥락과 체계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인간의 삶이 환경과 분리된 것이 아닌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과정이자 결과이므로,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 역시 그들을 둘러싼 환경과의 맥락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와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는 그들이 처한 사회환경적 맥락과 체계와의 상호작용, 그 안에서의 경험에 초점을 두는 연구가 요구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단일 요인들과의 부분적인 관계만을 분석한 연구들[11-21]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생태체계적 점에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한 모형 안에서 통합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없다. 또한 접근성의 제약으로 인해 일 도시 혹은 농촌지역, 특정국가의 소집단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11-18]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결혼이주여성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연구 결과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표성을 확보한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고찰

### 2.1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는 주관적 복지의 구성요소로서, 현재, 과거, 미래의 삶에 대한 만족 등을 통해 개인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총체적인 판단과 인지적인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22]. 즉, 생활만족도는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비교적 잘 포착할 수 있는 특성을 지녔으며,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는 생활 전반적인 영역에서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개개인이 인식하는 주관적인 느낌이나 안녕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민자들의 생활만족도에 따라 정착한 국가에 대한 사회적 기여도가 달라진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생활만족도는 정신건강을 가늠하는 척도로도 활용되고 있다[23]. 따라서 결혼을 이유로 이주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생활만족도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사회 성장 동력으로서 기여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1]에서 결혼이민자 귀화자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총 5점 만점 중 3.65점으로 전반적인 생활에 보통이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만족(불만족 & 매우 불만족)이라는 응답은 2012년에 비해 2015년도에 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24].

그 동안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 부적응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결혼이주 여성들을 자신의 문제에 대한 능동적 행위 주체자로 인식하고 그들의 한국 사회적응을 긍정적 인지 정서에 초점을 두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 2.2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2.1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및 개인체계 요인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주로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한국어 활용능력, 다문화 지향성, 우울, 주관적 건강상태 등이 개인체계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보고되고 있다.

연령과 교육수준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들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연령이 감소할수록 생활만족도가 증가한다는 연구들[25]이 보고되고 있는 반면, 연령과는 관련이 없다는 연구들도 있다[10,15]. 교육수준 역시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생활만족도가 증가한다는 연구들[11,26]이 있는 반면 반대의 결과를 보고한 연구들도 있다[10,12].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일수록 생활만족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5].

한국어 활용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지역서비스의 접근성 및 취업이나 학습을 용이하게 함으로서 지역사회 적응이 용이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활용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22].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가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낮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 가구소득, 교육수준, 수급여부를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감, 다문화지향성, 한국어 활용능력 수준을 개인체계 요인으로 연구에 포함하였다.

### 2.2.2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체계 요인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체계 요인들에는 주로 배우자지지, 자녀관계, 부부 의사결정 수준, 부부대화시간 등이 보고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배우자 및 자녀들과의 가족관계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배우자의 지지나 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7]. 또한 부부관계에 있어서 권력구조나 의사결정에 있어 이주여성 본인이 더 많이 가질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여성들의 경우 자녀와의 관계 역시 생활만족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27]. 즉 자녀와의 관계나 만족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대화시간과 생활만족도간의 관계를 직접 살펴본 연구는 없으나 대화시간이 많을수록 서로에 대한 이해나 어려움을 나눌 기회가 있을 것이라 예측되어 생활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배우자관계 만족도, 부부대화시간, 부부 의사결정 수준, 자녀관계 만족도를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체계 요인으로 연구에 포함시켰다.

### 2.2.3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체계 요인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체계 요인에는 주로 사회적 지지, 사회자본, 사회적 차별 경험, 다문화관련 지원시설 이용경험 등이 보고되고 있다.

사회적지지 중 정서적 지지는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도 높아지고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19].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원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8].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배우자가족모임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사회적 자본의 모국인 친구 네트워크는 오히려 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모국인 친구모임과 지역사회모임의 네트워크 참여는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사회적 차별 경험은 개인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 알려져있다. European Social Survey(ESS)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주자가 경험하는 차별이 그들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Safi[29]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차별을 경험 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자본은 결핍된 공동체에 있어 낮은 삶의 질과 주관적 복지에 대해 완충제 역할을 하며,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자본은 한국사회에서의 적응력과 지속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며 생활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0].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이주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공식적 기관의 지지가 결혼생활만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21]. 즉 배우자지지, 시부모 지지, 한국친구지지, 모국친구 지지, 친정부모 지지, 기관 지지 중에서 배우자 지지와 기관 지지만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하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는데, 배우자 지지를 제외하면 비공식적인 가족과 친구 지지보다 공식적인 사회적 지지

요인이 결혼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지지, 사회적 차별 경험, 사회자본, 다문화지원센터 이용 여부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체계 요인으로 예측되어 연구에 포함하였다.

## 3. 연구방법

### 3.1 연구모형

선행연구들 토대로 한 연구 모형은 그림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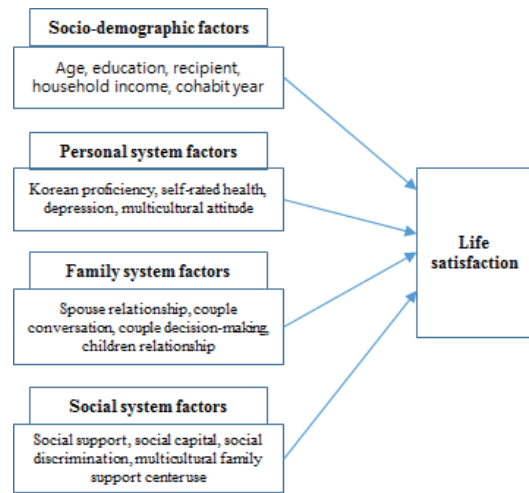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 3.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여성정책연구원에 의해 수행된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자료에 등록자료를 보완하여 전국 3,487개 읍면동을 표본추출틀로 활용하였다. 1단계 집락계통추출을 통해 읍면동의 30%인 1,045개 읍면동을 추출하고, 2단계 층화계통 추출을 통해 응답완료 약 16,000가구를 목표로 27,120가구를 과대추출하였다.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3년주기로 시행되고 있으며, 조사대상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정의하는 다문화가족, 즉, 결혼이민자·귀화자와 그의 배우자 및 만 9~24세 청소년 자녀와 가구이다. 조사는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와 자기기입식 설문을 병행하여 7월 22일~8월 18일까지 조사가 실시

되었다. 표본가구 27,120가구 중 65.8%인 17,849가구가 응답하였으며, 결혼이민자·귀화자는 표본가구 27,120가구 중 63.1%인 17,109명이, 배우자는 15,540명(57.3%), 자녀는 6,079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귀화자 17,109명의 자료 중 여성결혼이민자 14,464명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 3.2 주요 변수의 측정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귀화자 설문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종속변수인 생활만족도는 전반적인 생활을 고려하여 현재 삶에 대한 만족 수준을 5점 척도(1=매우 좋다, 2=좋은 편이다, 3=보통이다, 4=나쁜 편이다, 5=매우 나쁘다)로 측정된 1문항을 활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역코딩을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독립변수 중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 국민기초 수급 가구 여부는 가구 구성표 자료를 활용하였다. 성별은 여자(0)와 남자(1)로, 교육수준은 무학(0), 초졸(1), 중졸(2), 고졸(3), 대졸(4), 대학원이상(5)로, 수급여부는 비수급(0)과 수급(1)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동거기간은 배우자와 살기 시작한 연도를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개인체계 요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5점 척도(1=매우 좋다, 2=좋은편이다, 3=보통이다, 4= 나쁜 편이다, 5=매우 나쁘다)로 측정된 1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역코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우울감은 지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지를 4점 척도(1=그런적 없다, 2=가끔 느꼈다, 3=자주 느꼈다, 4=매주 자주 느꼈다)로 측정된 1문항을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다문화 지향성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자기 문화를 버리고 한국 문화나 관습을 따라야한다’는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6점(1=전적으로 동의한다, 2=동의한다, 3=약간 동의한다, 4= 약간 동의하지 않는다, 5=동의하지 않는다, 6=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으로 측정된 1문항을 역코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 문화나 관습을 따르는 것에 동의하는 수준이 높음으로 해석된다. 한국어 능력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4

영역을 5점 척도(1=매우 잘한다, 2=약간 잘한다, 3=보통이다, 4= 별로 못한다, 5=매우 못한다)로 측정된 문항들을 역코딩한 후 평균을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어 능력 수준이 높다고 해석된다.

가족체계 요인 중 배우자관계 만족도는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 수준을 5점 척도(1=매우 만족, 2=약간 만족, 3=보통, 4=별로 만족하지 못함, 5=전혀 만족하지 못함)로 측정된 1문항을 역코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 관계만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부부대화 시간은 부부대화 시간이 하루 평균 얼마나 되는지를 묻는 1문항을 활용하였다(1=전혀 하지 않음, 2=30분미만, 3=30분~1시간, 4=1~2시간, 5=2시간이상). 부부 의사결정 수준은 자녀교육, 생활비지출, 배우자 취업직장 이동에 대한 의사결정 수준을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의 의사결정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자녀관계만족도는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자녀의 친구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한다’는 3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된 문항을 활용하였다. 역코딩하여 3문항의 평균을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관계 만족도가 높다고 해석된다.

사회체계 요인 중 사회적 지지는 가족을 제외하고 집안일, 일자리, 자녀교육, 여가 취미생활, 도움 요청할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5문항의 합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관계망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차별경험은 한국 생활에서 차별이나 무시당한 경험유무를 묻는 1문항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회 자본은 한국사회에 생활하면서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 형성된 네트워크 참여 수준을 관측변수로 활용하였다. 지난 1년간 학부모, 모국인 친구, 지역주민, 종교, 민간단체 활동에 참여 경험 여부를 묻는 문항의 합을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모임참여 활동이 많음을 의미한다. 다문화 관련 지원시설 이용 경험 여부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용 경험유무를 묻는 1문항을 활용하였다.

### 3.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2.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개인체계 요인, 가족체계 요인, 사회체계 요인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적 분석



을 실시하였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를 예측하는 변수 및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투입하여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하였고(model 1),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개인체계 요인을(model 2),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가족체계 요인을(model 3), 네 번째 단계에서는 사회체계 요인을 투입하여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하였다(model 4).

## 4. 분석결과

### 4.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결혼이주여성 14,464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표 1>에 정리하였다. 연령 평균은 37.4세였고, 30대(36.3%)가 가장 많았으며, 교육수준은 고졸이 42.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200~300만원대(32%)가 가장 많았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체의 4.8%로 나타났다.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4,464)

Variable	Category	Frequency	percentage
Age(year)	< 20	26	0.2
	20~29	3,824	26.4
	30~39	5,250	36.3
	40~49	3,328	23.0
	50~59	1,508	10.4
	60~69	328	2.3
	70+	200	1.4
Education level	uneducated	181	1.3
	less than high school	3,825	26.4
	high school	6,092	42.1
	college or more	4,366	30.2
Household income (thousand won)	less than 100	1,121	7.8
	100 ~ less than 200	3,429	23.7
	200 ~ less than 300	4,635	32.0
	300 ~ less than 400	2,989	20.7
	400 ~ less than 500	1,339	9.3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600 or more	951	6.5
	recipients	698	4.8
	non-recipients	13,766	95.2

### 4.2 주요 변수의 기술적 통계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를 <표 2>에 정리하였다. 한국어 능력수준 평균은 3.66점으로 보통정도로 평가하고 있으며, 주관적 건강상태도 3.78점으로 나타났다. 우울감 평균은 1.47점으로 가끔 느끼는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고, 다문화지향성은 3.54점으로 자기문화를 버리고 한국 문화나 관습을 따라야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 관계만족도는 2.07점으로 별로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반면 자녀관계 만족도는 4.20점으로 만족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부부평균 대화시간은 평균 3.56점으로 이는 하루 평균 30분~1시간 미만으로 대화를 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의사결정 수준 평균은 2.33점으로 의사결정 대부분을 본인이 결정하고 배우자가 도와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적 지지의 평균은 3.5점으로 가족 이외에 도움을 받을 사람이 3명 이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차별경험을 받았다고 느낀 사람이 39.3%로 1/3이상이 사회적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scriptive results

Variable		Mean	S.E	Max	Min
Personal system factor	Korean proficiency	3.66	0.97	1	5
	self-rated health	3.78	0.85	1	5
	depressive mood	1.47	0.68	1	4
	multicultural attitude	3.54	1.50	1	6
Family system factors	spouse relationship	2.07	0.97	1	5
	children relationship	4.20	0.69	1	5
	couple conversation	3.56	1.11	1	5
	decision-making	2.33	0.94	1	5
Social system factors	social support	3.5	1.64	0	5
	social capital	1.17	1.00	0	4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use	2.41	0.73	1	3
	social discrimination	Yes: 5,682 person(39.3%) No: 8,782 person(60.7%)			

### 4.3 생활만족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허용값(Tolerance)과 분산팽창계수(VIF)를 살펴본 결과, 본 연구에서 독립변인들의 허용값은 0.441~0.992의 범위에 있었으며, 분산팽창계수도 1.079~2.314의 범위에 속해있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요인, 개인체계 요인, 가족체계 요인, 사회체계 요인으로 세분화시킨 독립변인을 4단계로 투입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표 3>에 정리하였다.

각 단계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1단계에서 투입한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은 생활만족도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소득이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이 높고 비수급자일수록, 연령이 어리고 동거기간이 짧을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함께 개인체계 요인(한국어능력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감, 다문화지향성)을 투입하였다. 설명력은 24.1%였으며, R<sup>2</sup>변화량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체계 요인들 중 우울감( $\beta=-0.286, p<0.000$ )과 주관적 건강상태( $\beta=0.225, p<0.000$ )가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로 나타났다. 즉, 우울감이 낮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생활만족도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어 능력수준이 높고 다문화지향성 수준이 높을수록 생

활만족도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2단계에 투입된 요인들과 함께 가족체계 요인(배우자 만족도, 자녀관계 만족도, 부부대화시간, 의사결정 수준)이 투입되었다. 생활만족도 수준에 대한 설명력은 40%였으며, R<sup>2</sup>변화량도 15.9% 증가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체계 요인 모두 생활만족도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배우자 만족도 수준( $\beta=0.391, p<0.000$ )은 매우 영향력이 큰 변수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우울감( $\beta=-0.172, p<0.000$ )과 주관적 건강상태( $\beta=0.155, p<0.000$ )의 순으로 생활만족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우자 만족도 수준과 자녀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의사결정 수준이 배우자에게 있을수록 부부대화시간이 증가할수록 생활만족도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단계에서 생활만족도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던 교육수준은 2단계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단계에서는 3단계에 투입된 요인들과 함께 사회체계 요인(사회적지지, 사회자본, 사회적 차별경험, 다문화지원센터 이용경험)을 투입하였다. 생활만족도 수준에 대한 설명력은 40.5%였으며, R<sup>2</sup>변화량은 0.5% 증가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체계 요인 중 사회적지지, 사회자본, 사회적 차별경험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수준이 높을수록 사회활동 참여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차별경험이 적을수록 생활만족도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여부는 생

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결혼이주 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생활만족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에는 연령, 월소득, 수급여부, 동거기간이, 개인체계 요인 중에는 우울감, 주관적 건강상태, 한국어능력수준, 다문화지향성이, 가족체계 요인 중에는 배우자관계 만족도, 자녀관계 만족도, 부부대화시간, 의사결정수준이, 사회체계 요인 중에는 사회적지지, 사회자본, 사회적 차별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독

립변인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가족체계 요인 투입 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던 교육수준은 영향력이 사라지고 가족체계 요인들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 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배우자관계 만족도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우울감, 주관적 건강상태, 월소득, 자녀관계 만족도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체계 요인과 가족체계 요인이 생활만족도 수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Table 3.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Results

Variables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V	
		β(S.E)	t-value	β(S.E)	t-value	β(S.E)	t-value	β(S.E)	t-value
socio-demographic factors	age	-0.09 (0.00)	-6.36***	-0.05 (0.00)	-4.02***	-0.04 (0.00)	-3.39**	-0.04 (0.00)	-3.66***
	education	0.07 (0.01)	6.49***	0.05 (0.01)	5.42***	0.01 (0.01)	0.85	0.00 (0.01)	0.07
	household income	0.16 (0.01)	15.94***	0.12 (0.05)	12.31***	0.08 (0.01)	9.72***	0.08 (0.01)	10.03***
	recipient	0.06 (0.01)	5.09***	0.03 (0.05)	3.10**	0.02 (0.04)	2.97**	0.02 (0.04)	2.92**
	cohabit year	-.10 (0.00)	-6.88***	-0.10 (0.00)	-7.74***	-0.02 (0.00)	-2.06*	-0.04 (0.00)	-2.93**
personal system factors	Korean proficiency			0.06 (0.01)	6.47***	0.02 (0.01)	2.80**	0.02 (0.01)	2.40*
	self-rated health			0.23 (0.01)	23.35***	0.16 (0.01)	17.77***	0.15 (0.01)	17.22***
	depression			-0.29 (0.01)	-30.84***	-0.17 (0.01)	-20.11***	-0.17 (0.01)	-19.24***
	muticultural attitude			0.03 (0.01)	3.82***	0.03 (0.01)	3.57***	0.03 (0.01)	3.74***
family system factors	spouse relationship					0.39 (0.01)	43.38***	0.39 (0.01)	42.78***
	children relationship					0.08 (0.01)	9.57***	0.08 (0.01)	9.26***
	couple conversation					0.07 (0.01)	8.07***	0.07 (0.01)	7.95***
	decision-making					0.02 (0.01)	2.25*	0.02 (0.01)	2.14*
social system factors	social support							0.03 (0.01)	3.54***
	social capital							0.04 (0.01)	4.74***
	social discrimination							-0.04 (0.02)	-5.41***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use							0.00 (0.01)	0.28
F		145.086***		347.150***		504.024***		392.890***	
R <sup>2</sup>		0.096		0.242		0.401		0.406	
adj. R <sup>2</sup>		0.095		0.241		0.400		0.405	
R <sup>2</sup> change		0.096***		0.146***		0.159***		0.005***	

\*p<0.05, \*\*<0.01, \*\*\*p<0.001



## 5. 결론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사회학적 요인, 개인체계 요인, 가족체계 요인, 사회체계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결혼이주여성 14,464명의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태체계 요인 즉, 개인체계, 가족체계, 사회체계 요인들 모두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개인체계 요인과 가족체계 요인이 생활만족도의 설명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러 요인들 중 배우자만족도가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셋째, 개인체계 요인 중에서는 건강과 관련된 요인 우울감 및 주관적 건강상태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녀관계 만족도는 가족체계 요인들 중에서는 배우자관계 만족도 다음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닌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구에 대한 함의 및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즉 개인, 가족 및 사회적 요인이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각각 체계 요인들이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는 단일 요인이 아닌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즉 결혼이주여성들의 생활 적응 및 생활만족도 증진을 위해서는 이들의 문제나 욕구를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배우자관계 만족도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 자녀, 시부모 등의 가족관계 중 남편관계 스트레스가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17]와 같은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부부간의 대화시간이 증가할수록 생활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와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는 결혼이주여성 개인에 대한 개입 뿐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개입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결혼을 통해 이주하여 가장 믿고 의지할 대상이 배우자임을 감안하면, 이들

의 적응과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해 무엇보다도 배우자와의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다문화가정 부부의 의사소통 및 관계 증진, 부부갈등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의 전략과 전문적인 상담 지원 등의 부부 혹은 배우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결혼이주 여성들의 생활만족도에 자녀관계가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증가 추세만큼이나 다문화 가정의 자녀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이주여성들이 자녀양육, 자녀와의 관계,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부모 자녀관계와 역할수행 정도에 따라 가족구성원과 부모-자녀 관계의 수준이 달라지고 부모의 자기효능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자녀관계 증진 및 효율적인 자녀양육 행동 지원은 이들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사회적 차별을 경험할수록 생활만족도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다문화실태조사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적 차별의 경험이나 강도는 알 수는 없으나,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나 태도인 차별 경험은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로서 위치하고 있는 이주여성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은 클 수 있다고 생각된다. 결혼이주여성의 낮은 생활만족도로 인한 부정적 결과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경험하는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사회적 지지 및 사회자본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관계망이 넓고 사회참여 활동이 많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반면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가족 이외에 집안 일, 일자리 관련, 자녀 교육, 여가나 취미 생활을 같이 할 상대, 도움 요청 상대 등 각각의 측면에서 결혼이민자·귀화자 중 30% 이상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 관계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2012년에 비해 생활의 제반 측면에서 도움이 될 만한 사회적 관계가 발달하지 못한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1]. 특히, 결혼이주여성 중 고연령층, 저학력층, 저소득층과 같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동원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는 취약하고, 향후 모임, 활동 참여 의향도 현저히 낮은 만큼, 사회적 관계망의 격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

책이 요구된다. 대부분의 측면에서 거주 기간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자연스러운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관련 정책에서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사회적 소외 문제 해결, 사회적 관계 확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이들 집단 자체가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차원에서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어 지원 서비스 이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발적인 의지를 갖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서비스 체계에서 이들 집단의 성격과 수요를 고려한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이 미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섯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활성화와 다문화가족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여부는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용률이 낮거나 그들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결과일 수도 있다. 손[32]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망이 없거나 한국어 구사능력이 낮을수록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인지할 가능성이 낮고 따라서 이용율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함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의 효과성을 평가해보고 이에 근거한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일곱째, 본 연구에서 개인특성 요인 중 우울감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한국사회로의 이주와 결혼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들이 이러한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고 우울, 불안 등의 정신건강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개입 시 신체적 및 정신건강에 대한 사전 스크리닝을 통해 사전예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곱번째, 인구사회학적 요인들 중에서 월평균 소득이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수입권가구일수록 생활만족도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다문화가정의 생활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이들 다문화가정이 일정한 생활수준과 문화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인인 교육수준은 가족요인과 사회요인이 투입되었을 때,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사라졌다. 이는 개인의 교육수준은 한국어 활용능력에도 영향을 미쳐 교육수준의 영향이 한국어활용 능력으로 수렴되어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예측된다. 한편으로는 성인지 초기에 결정되는 교육수준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가족 요인이나 사회 요인 등의 사회환경적 요인들이 더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든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환경적 요인들에 대한 개입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대표성을 확보한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지니는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2차자료 분석을 하여 변수의 설정과 활용에 있어서 제한점이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중 결혼이주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외국인 남편-한국인 부인의 비교분석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추후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 References

- [1] H. S. Chung, Y. S. Kim, T. Yi, K. H. Ma, Y. Choi, G. Park, C. Tong, J. M. Hwang, E. Lee, *An Analysis on the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2015*,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6.
- [2]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
- [3] H. B. Murphy, "Migration, culture and mental health", *Psychological Medicine*, pp. 677-684, 1997.
- [4] Y. Kim, "Women-Immigrants' Lives and their Social-cultural Accommodation-related Policy for the Multi-cultural Society", *Journal of Asian Women*, pp. 143-189, 2006.
- [5] E. H. Park, I. J. Cho, "A Study on Life Satisfact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SOCIAL SCIENCE RESEARCH*, vol. 28, no. 2, pp. 29-54, 2011.
- [6] A. B. Levy, B. A. Roger, E. Lin. "Life Satisfaction - Aspirations and Alcohol Use: A Preliminary Report."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8, pp. 441-452, 1980.
- [7] Koivumaa-Honkanen, Heli, Risto Honkanen, Heimo Viinamäki, Kauko Heikkilä, Jaakko Kaprio, Markku Koskenvuo. "Self-Reported Life Satisfaction and 20-year Mortality in Healthy Finnish Adults", *American Journal*

- of *Epidemiology*, vol. 152, no. 10, pp. 983-991, 2000.  
DOI: <https://doi.org/10.1093/aje/152.10.983>
- [8] R. F. Valois, Z. J. Keith, H. E. Scott, D. J. Wanzer, "Life Satisfaction and Suicide among High School Adolescen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66, pp. 81-105, 2004.  
DOI: <https://doi.org/10.1023/B:SOCI.0000007499.19430.2f>
- [9] E. J. Lee, M. K. Jun. "A Meta-Analysis of the Related Variables with Marital Satisfaction for Marriage Migrant Women", *Korea Social Policy Review*, vol. 21, no. 4, pp. 9-44, 2013.
- [10] N. Y. Kim, "A Study on Life Satisfaction of International Married Immigrant Women",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07.
- [11] O. K. Yang, M. K. Song, S. W. Im, "A study on acculturation stress of internationally-married female migrants in Seoul",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 14, no. 1, pp. 137-168, 2009.
- [12] H. J. Choi.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Pertaining to the Acculturation Strategies among Immigrated Women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61, no. 1, pp. 163-194, 2009.
- [13] K. J. Kang, J. O. Im, M. Y. Lee, "The effects of psychosocial resources on life satisfaction in married immigrant women: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job-seeking efficacy",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9, no. 3, pp. 387-404, 2014.  
DOI: <https://doi.org/10.13049/kfwa.2014.19.3.387>
- [14] E. H. Park, I. J. Cho, "A Study on Life Satisfact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SOCIAL SCIENCE RESEARCH*, vol. 28, no. 32, pp. 29-54, 2012.
- [15] E. Jang, Y. Choi, "A study on the effects of cultural identity on life satisfaction of the female marriage immigrants", *SOCIAL SCIENCE RESEARCH*, vol. 26, no. 3, pp. 1-25, 2010.
- [16] H. R. Sung, "The Influence of Husbands' Sex Role Stereotype, Intercultural Sensitivity, and the Acceptance of Their Wives' Culture on Their Wives' Acculturation and Marital and Life Satisfaction in Multicultural Family: Daegu and Gyeongbuk Area",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vol. 17, no. 2, pp. 219-239, 2011.
- [17] J. H. Lee, B. I. Seo, "The influential factors on life satisfaction for women in multi-cultural home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Health and Welfare for Elderly*, vol. 2, no. 2, pp. 77-93, 2010.
- [18] K. M. Kim, "Married Immigrant Women's Social Networks and Life Satisfaction in Korea : The Case of Women from China, Vietnam, and Japan",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ol. 35, no. 2, pp. 185-208, 2012.
- [19] M. J. Park,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on Life Satisfaction of Immigrant Women with Marriage",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 [20] I. Y. Song, Y. H. Kim, "Relationships among lifelong education, types of social capital, and adjustments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vol. 17, no. 4, pp. 147-169.
- [21] H. S. Kim, H. J. Kim, J. H. Oh,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marital quality among marriage migration females", *Family and culture*, vol. 22, no. 3, pp. 97-127, 2010.
- [22] E. Diener, "Guidelines for national indicators of subjective well-being and ill-being",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vol. 7, no. 4, pp. 397 - 404, 2006.  
DOI: <https://doi.org/10.1007/s10902-006-9000-y>
- [23] N. Vohra, J. Adair, "Life satisfaction of Indian immigrants in Canada", *Psychology Developing Societies*, vol. 12, no. 2, pp. 110-138, 2000.  
DOI: <https://doi.org/10.1177/097133360001200201>
- [24] K. T. Jeon, H. S. Chung, I. S. Kim, Y. R. Kim, J. S. Joo, H. Y. Kim, C. K. Son, J. B. Lee, K. Chung, J. Hwang, M. J. Kang, B. Y. Sun, Y. Choi, Y. S. Chu, G. P. Park, C. Tong, *An Analysis on the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201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2.
- [25] K. M. Kim, "Married Immigrant Women's Social Networks and Life Satisfaction in Korea : The Case of Women from China, Vietnam, and Japan",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ol. 35, no. 2, pp. 185-208, 2012.
- [26] J. H. Kim, O. I. Park, "Comparative Analysis on Family Conflict and Life Satisfaction between Rural and Urban Immigrated Women", *The Journal of Rural Society*, vol. 18, no. 1, pp. 213-259, 2008.
- [27] H. S. Kim, Y. S. Lee, "Life Satisfaction among Marriage-Immigrant Women: Focusing on Social Context and Social Discrimination",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vol. 47, no. 2, pp. 177-209, 2013.
- [28] I. Y. Song, Y. H. Kim, "Relationships among lifelong education, types of social capital, and adjustments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vol. 17, no. 4, pp. 147-169, 2011.
- [29] M. Safi, "Immigrants' Life Satisfaction in Europe: between Assimilation and Discrimination",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vol. 26, no. 2, pp. 159-176, 2010.  
DOI: <https://doi.org/10.1093/esr/jcp013>
- [30] L. Camfield, S. M. Skevington, "On Subjective Well-being and Quality of Life.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13, pp. 764-775, 2008.
- [31] H. S. Kim, H. J. Kim, J. H. Oh,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marital quality among marriage migration females", *Family and culture*, vol. 22, no. 3, pp. 97-127, 2010.
- [32] B. D. Son, "Factors Associated with Cognition and Utiliz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among Foreign Spouses of Multicultural Familie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34, no. 4, pp. 354-384, 2014.  
DOI: <https://doi.org/10.15709/hswr.2014.34.4.354>

권 태 연(Taeyeon Kwon)

[정회원]



- 2003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
- 2010년 2월 :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박사)
- 2003년 3월 ~ 2006년 2월 :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사회사업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 근무
- 2011년 3월 ~ 현재 : 선문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일반인의 정신건강, 알코올중독, 우울